

3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56.27 (-4.95)	928.40 (+4.59)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3.711 (-0.021)	1321.80 (-1.60)

metro® 경제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9월 1일 금요일

하반기 兆단위 대어급 출격 준비

IPO 주관사 실적 지각변동 예고

한투증권 주관 실적 4080억 '1위' 에코프로머티·두산로보틱스 大魚 미래에셋·NH투자증권 주관 주목



하반기 조 단위 '대어'들의 기업공개(IPO) 출격이 예고되면서 주관사들의 실적 변동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두산로보틱스, SGI서울보증보험과 더불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연내 상장 가능성도 시사되면서 실적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31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현재 IPO 주관 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408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NH투자증권(2805억원), 미래에셋증권(2444억원), 삼성증권(1690억원) 순이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은 대형급 없이 중소형주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에 실적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KB증권이 LG에너지솔루션을 주관하면서 13조4479억원이라는 압도적인 실적으로 1등을 유지했다. 올해도 보안솔루션업체 '한씩'을

시작으로 두산로보틱스, LS머티리얼 등의 대어 주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관 실적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반기 IPO 시장은 침체된 양상을 보이면서 실적 변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조 단위 대어급의 출격이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유석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2개 정도에서만 기대감이 보이는 것 같다"며 "두 기업의 IPO가 흥행한다면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 잘 안 된다면 시장이 계속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시가총액이 3조~5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이르면 연내 상장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IPO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두산로보

틱스의 희망밴드(2만1000원~2만6000원) 상단 기준 예상 시가총액도 1조 6853억원이다. 만약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올해 상장한다면 두산로보틱스, SGI서울보증보험과 더불어 올해 세 번째 조 단위 대어급 신규 상장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대감이 높은 두산로보틱스와 에코프로머티리얼즈를 모두 주관하는 증권사는 현재 2, 3위를 지키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외에도 지난해 상장을 철회했던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대어급 IPO를 주관한다. NH투자증권 역시 SK에코플랜트 등 주관 일정이 활발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상반기에도 중소형사를 더불어 알팩과 과두를 모두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실적 흐름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두산로보틱스 등의 상장이 완료되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남산 지나가는 '블랙이글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31일 오후 서울 상공에서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축하비행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m-커버스토리

'사법 리스크' 방어 급급 방탄·사당화 논란 직면

'취임 1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든 이슈마다 '사법리스크' 발목 비이재명계 의원 당 사당화 지적



이재명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가에 가까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는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으나 지난 1년의 성적표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관련기사 3면>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당내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로 선출되며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열거나 당을 사당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이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협치의 의지를 보였으며, 각종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도 했지만, 사법리스크가 모든 이슈마다 따라 붙으며 이대표의 발목을 잡아 그의 노력은 빛이 바랬다.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힘지로 가라는 일각의 요구에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에서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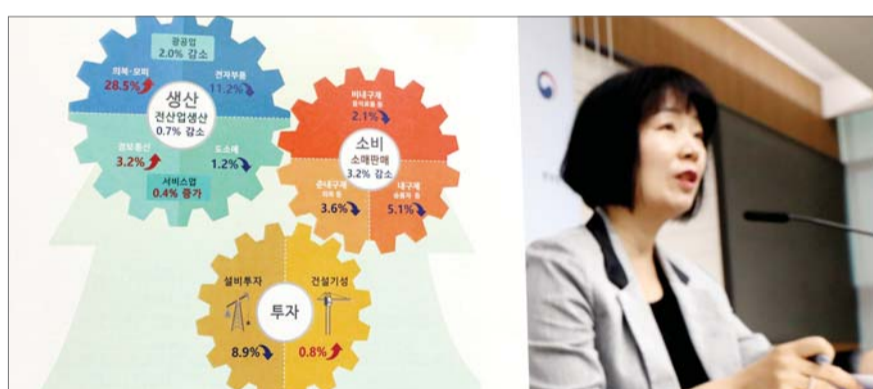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압박한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 국회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결국 부결됐으나, 민주당의 이탈표를 확인하면서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자신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사업에 대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6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농·어업 제외 전 생산 0.7% ↓ 전자부품·기계장비 등 크게 감소 투자, 11년 사이 최대폭으로 줄어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부 줄었다. 이른바 '트리플 감소'다. 투자의 경우 최근 11년 사이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 및 어업을 제외한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올해 1월에 감소(-0.2%)로 시작해 2월(1.1%)과 3월(1.1%)에 증가했다. 이후 4월(-1.3%)에 주춤했으나 5월(0.7%)에 반등했다. 그러나 6월(0.0%)에 상승세를 멈춘 데 이어 7월에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전자부품(-11.2%) 및 기계장비(-7.1%) 등에서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자부품은 액정표시장치(LCD)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전반적

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라며 "이달은 6월(전월)에 전자부품이 10.5%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11.2%(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4.0%)와 자동차(4.8%) 부문에서 많이 증가했다. 소비(소매판매)는 6월보다 3.2% 줄었다. 이는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소비 역시 생산과 같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소비는 올해 1월(-1.8%) 감소한 뒤 2월(5.2%)과 3월(0.1%) 증가세로 전환했다. 4월(-

2.6%)에 감소했다가 5월(0.6%)과 6월(0.9%)에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달 다시 줄어들었다.

승용차등내구재(-5.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1%), 의복 등 준내구재(-3.6%)에서 모두 감소했다.

투자(설비투자)는 4월(0.8%)과 5월(3.1%) 증가했으나 6월(-1.1%)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8.9%)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 등의 운송장비 부문 설비투자가 무려 22.4% 급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김남국 제명안 부결'에 비명계 "이재명 책임론" 제기
- ▲ 국회 행안위, '이태원특별법' 의결... 야 단독 처리 /사진 뉴시스

- ▲ 이재명 단식... 한동훈 "맥락 없어"檢 "일체 고려없이 수사"
- ▲ 경실련 "양당, 선거법 '밀실야합' 중단... 비례 확대해야"



- ▲ 한 총리, '홍범도함' 함명에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 수정 검토해야" /사진 뉴시스
- ▲ [NBS]여야 대표 직무수행 평가... 김기현 28% 이재명 33%